# 알마티 2022, 30 년 만에 가장 책임감 있고, 편리하며, 지속가능한 동계올림픽 컨셉 선보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스위스 로잔 2015 년 7 월 24 일 PRNewswire=연합뉴스) 알마티 2022 는 알마티 시와 지역을 위해 오래 남는 진정한 올림픽 유산을 구축함으로써 동계올림픽을 기획하고 개최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더 많은 도시들이 동계올림픽 개최 신청을 하는데 영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알마티는 매우 오랜 동계스포츠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그 시작은 195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련연방체제 하에서 알마티는 야외 동계스포츠 활동의 중심지였다. 20 년 전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후로 알마티는 유라시아 최고의 동계스포츠 중심지라는 입지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583851-almaty-2022-winter-games-concept/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50724/241960

알마티는 진정한 동계스포츠 도시이자, 유라시아 최고의 관광국 중 하나로 끊임없이 번성하고 있다. 알마티에서 동계스포츠의 성장은 알마티 시와 지역의 오랜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2022 동계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을 기획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선수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동계올림픽 모델

알마티 2022 의 올림픽 컨셉은 지난 30 년간의 올림픽 컨셉 중 가장 소규모를 지향한다. 모든 대회 장소가 올림픽촌에서 반경 30km 내에 위치하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선수들을 비롯해 올림픽 가족과 관중들에게 유례 없는 편의를 제공한다.

진정한 동계스포츠를 위한 진정한 동계스포츠 경기장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기장 중 70%가 이미 마련됐으며, 동계스포츠 용도로 십분 이용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스키장과 기타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던 알마티는 2000 년 이후 6 개의 1 등급 경기장을 새로 건설했다. 2017 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는 알마티는 2017 년까지 필요한 경기장 중 80%를 보유하게 된다.

카자흐스탄 문화스포츠부 장관 Arystanbek Mukhamediuly 은 “알마티의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은 동계스포츠를 향한 카자흐스탄 국민의 열정에서 비롯됐으며, 카자흐스탄의 장기적인 스포츠 기반시설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며, “알마티는 2 개의 경기장만 추가로 건설하면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마티 시와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기장 추가 건설로 우리의 전략적 계획이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면서 “동계올림픽 개최로 카자흐스탄과 중앙 아시아 지역의 동계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alAlmaty2022 팔로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RealAlmaty2022
트위터: https://twitter.com/realalmaty2022

출처: Almaty 2022 Candidate city